

김철우 보성군수 취임

1주년 "현장에 답 있다"

자연재난 사전대비 현황 점검 현장간부회의 실시



김철우 보성군수는 취임 1주년을 맞이한 1일 아침 주요 간부공무원, 지역주민과 함께 별교 장좌배수펌프장에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현황을 점검하는 현장간부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역 주민들은 김

군수와 함께 별교지역 배수펌프장 시설 현황, 여름철 물놀이 시설 운영 계획 등을 보고 받았으며, 별교읍내 배수펌프장 2곳과 다중빌딩시설인 별교역 주변 도로확장 공사현장을 둘러보며 우기철 대비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김 군수는 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폭염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을 격려하면서 폭염대비 방법을 설명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시 논물대기 등에 대해 당부하며 한발 앞선 소통, 두발 빠른 행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현장회의를 진행한 김철우 군수는 작년 7월 1일 전국에서 제일 먼저 취임식을 취소하고, 폭우가 쏟아지는 보성 동암교 아래에서 첫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태풍현장에서 첫 임기를 시작한 바 있다.

김철우 군수는 "작년 어려운 상황이 많았지만 군민과 행정이 하나 되어 재난안전분야 집관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며 "재난은 발생시점에 대처하면 피해가 커지므로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광양시보건소 '유행성이하선염' 발생 증가 따른 주의 당부

개인위생수칙 철저·MMR백신 예방접종 필수

광양시보건소는 6월 들어 유행성이하선염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감열병에 걸리지 않도록 손씻기, 기침예절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6월 광양시 유행성이하선염 발생자 수는 9명으로 지난달 2명에 비해 3.5배 증가했다. '유행성이하선염'은 환자가 기침할 때 분비되는 침방울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주로 4~6세와 13~18세에서 발생률이 높다.

유행성이하선염은 무증상감염이 20%를 차지하며, 증상이 있는 경우 귀밑 이하선(침샘) 부위가 붓고 1주일가량 통증을 동반한다.

유행성이하선염은 특별한 치료제가 없어 증상을 완화하는 대증요법(수분 및 전해질 공급, 진통제 투여 등)을 시행하고 있다.

유행성이하선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MMR백신을 적기에(1차 생후 12~15개월, 만 4~6세) 접종 완료해야 한다.

정선주 감염병관리팀장은 "유행성이하선염 의심증상이 나타날 경우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증상 발현 후 5일까지 격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순천시, '가곡지구 우수저류시설 국비사업' 선정

상습침수 불안감 벗어나



순천시는 2020년 행정안전부 생활밀착형 SOC사업에 가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선정되어 가곡동 일대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상습침수의 불안감에서 벗어나게 됐다.

'가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가곡지구가 2015년 순천시 중수해저감종합계획에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막대한 예산 소요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시는 국비 예산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를 찾아 사업의 시급성, 합리성 등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사업은 190억원(국비 95억, 시비 95억)의 예산으로 81ha의 유역면적에 대한 침수예방을 위해 1만 입방미터(m³)의 우수저류조, 3

만 입방미터(m³)의 우수지, 분당 120톤의 배수펌프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2020년부터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기본 및 실시설계, 도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2년에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심침수 제로화로 시민 안전이 최우선인 도시, 안전에 강한 도시 순천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구례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구례군은 지난해 하반기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한 가구 87세대에 총 125만1천 상당의 인센티브(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군은 금년부터 탄소포인트 참여

자중 과거 2년간의 월 평균 에너지 사용량과 현재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해 감축률에 따라 5%이상 10%미만 연 최대 3만 5,000원, 10%이상 15%미만 연 최대 7만원, 15%이상 연 최대 10만원을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연 2회(6

월, 12월) 지급하고 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cpoint.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거나 구례군청 환경교통과 및 읍면사무소에 서면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구례=박진호 기자

여수시, '2019 MICE 여수 포럼' 성료

엑스포컨벤션센터·유담호텔서 열려...250여 명 참여



지난달 27일과 28일 엑스포컨벤션센터와 유담호텔리조트에서 열린 '2019 미이스 여수 포럼'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포럼에는 전국의 미이스·컨벤션 관계자, 지자체 공무원, 마이스 관련 대학생 등 250여 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Better Yeosu, Future Mice'를 주제로 지역 미이스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했다.

첫날은 스마트도시 전문가인 연세대학교 윤은주 교수가 주제강연

에서 공공·민간협력을 통한 스마트 도시 인프라 확장이 미이스도시로 성장하는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주)링크토폴리 이형주 부부장은 "모든 베뉴(Venue)는 여가시간을 가지고 경쟁하며, 여수는 유니크(unique)한 여수 브랜드를 파는 도시 마케팅을 해라"고 역설하면서, 도시 디자인과 마케팅에 대한 현장 경험을 가감 없이 소개해 청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한양대학교 노동형 교수는 차별화된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을 MICE로 연결하고 창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디자인 전문가인 스타퍼시 컴퍼니 김한상 대표는 디자인 씽킹에 의한 콘텐츠 서비스 전략을, 컨벤션센터 주변에 관광인프라 시설 구축을 통해 체류시간을 늘리는 전략을 고안할공회소 구성진 사무국장이 발표했다.

또한, 한국생태관광협회 김현 이사는 "여수는 MICE 전담기구 조직과 특화 전시·컨벤션 육성이 하루 빨리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튿날은 지역미이스 산업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전남대학교 강신경 교수가 좌장을 맡고, 여수시 이수남 MICE유치팀장이 여수시 MICE산업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사)한국 MICE협회 김승수 회장, 디오션호텔 유광현 부사장, 여수MICE협회 이창재 사무국장은 MICE 인증도시 여수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권오봉 시장은 "미이스 산업 관계자에게 여수는 매력적인 도시다"면서 "박람회장 내에 국제 규모의 전시컨벤션센터를 유치해 MICE 인증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송기홍 기자

곡성 청계동 계곡, 자연휴식제 마치고 재개방

곡성군은 오는 5일부터 2년 간의 자연휴식년제를 마친 청계동 계곡을 재개방한다고 밝혔다.

청계동 계곡은 도립사 계곡과 함께 곡성군의 대표적인 피서지의 하나로 꼽힌다.

곡성읍과 입면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약산이 큰 용처럼 달려오다가 강줄기를 만나 맑은 형상을 지니고 있다.

동약산 북쪽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들이 청계동 계곡으로 흐르면서 풍부한 수량과 꾸밈없는 자연스러

운 풍광을 자랑한다. 특히 여름에는 울창한 소나무 숲과 함께 더위를 피하기에 그만이다.

또한 입산 의장병이었던 청계 양대박 장군의 의병활동 본거지라는 역사적 의미도 간직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동안 도시민들이 많이 찾으면서 취사 및 야영 행위, 쓰레기 무단 투기로 청계동 계곡의 수질 및 생태 환경이 고통을 앓았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생태계 회복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지난 2017

년 7월부터 2년간의 자연휴식년제를 운영해 왔다. 인적이 끊긴 2년 동안 청계동의 생태가 목표한 대로 회복함에 따라 오는 5일 청계동 계곡이 군민들과 관광객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청계동 계곡 재개방과 함께 군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계도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자연휴식년제 기간 동안 회복된 청계동 계곡의 생태 보전을 위해 올 여름 피서객들이 행락 질서를 잘 지켜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심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시민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